

나의 영웅, 백씨 아저씨

정승권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평화로운 동네 분위기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명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머리가 반쯤 세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던 백씨 아저씨였다.

백씨 아저씨는 성격이 괴상하고 고약했다.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모여 놀고 있으면 냅다 쫓아와 조용히 하라며 호통을 치기 일쑤였다. 우리는 백씨 아저씨를 흰머리독수리라고 불렀는데, 항상 매의 눈을 하고서 쫓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 저만치서 백씨 아저씨가 매서운 눈초리를 하고 다가오는 게 보였다. 동네친구들은 “조심해~ 흰머리독수리가 쫓아온다.”라고 외치며 도망을 쳤다.

잠시 후 우리 곁으로 동네 아주머니 한분이 다가와 “너희들 학교에서 6.25 전쟁에 대해 배웠지? 백씨 아저씨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6.25 때 참전을 했던 분이야. 그렇게 고마운 어른을 놀리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셨다. 나와 친구들은 괴팍한 백씨 아저씨가 참전용사였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며칠 후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백씨 아저씨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저씨가 정말 6.25 참전용사예요?”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어떤 일인지 백씨 아저씨는 평소의 딱딱하고 통명한 말투대신,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옛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려주셨다.

아주머니의 말대로 백씨 아저씨는 6.25 참전용사였다. 1950년 6월 25일, 스무 살이 되던 해에 군에 입대했던 백씨 아저씨는 6.25가 발발한 후 어린 나이에 압록강까지 진격해 적과 싸웠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 것이다.

백씨 아저씨는 나라를 위해 싸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다고 말씀하셨다. 한 번은 중대가 야간기습을 받아 수십 명 중 10명 정도만 살아온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산골짜기에서 급습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다고 하셨다. 백씨 아저씨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먼저 피 흘리며 죽어간 전우들을 생각하면 늘 미안해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했다.

백씨 아저씨로부터 들었던 실제 전쟁의 모습은, 그간 학교에서 6.25 전쟁에 대해 배우며 머릿속로만 상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뚫고 전진하며, 전우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저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다 아저씨는 전쟁터에서 총을 맞아 왼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얻게 되었다.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것도 가슴 아픈데,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이 모두 풍비박산 나버렸던 것이다. 백씨 아저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북한군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저씨는 충격을 받아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1.4 후퇴 당시 북한군은 국군에게 협조를 했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끌고 가 즉결처형을 했는데, 이 와중에 백씨 아저씨의 가족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백씨 아저씨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해 애통해했다. 무엇보다 이 같이 끔찍한 일을 겪고도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다

고 한다.

부모를 잃고, 한쪽 다리마저 잃은 채 상처와 아픔으로 부대껴온 삶은 얼마나 험난했을까. 아저씨는 트라우마를 끌어안은 채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살다 보니 의도와는 다르게 괴팍한 노인으로 보였었던 것이다.

“되돌아보면 힘들고 모진 세월이었지만, 6.25 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지켰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 순간 백씨 아저씨와 같은 참전용사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깊은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백씨 아저씨는 평화로운 동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괴팍한 노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젊음을 희생해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준 조국의 영웅이었다.

얼마 후 나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백씨 아저씨의 집에도 놀러가게 되었다. 아저씨는 내게 6.25 전쟁 참전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사진을 보면서 덤덤하게 그때를 설명해주셨지만, 사진을 만지는 손끝에서 애잔함이 느껴졌다.

내가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씨 아저씨가 평생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 오셨다는 점이다. 지독한 트라우마로 인해 당신의 삶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아저씨는 최선을 다해 희망의 날갯짓을 하셨던 것이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도, 옛 동네를 찾아가면 백씨 아저씨 생각이 난다. 마치 옛 일기장을 넘기듯 백씨 아저씨의 6.25 참전 이야기가 기억 속에서 새록새록 되살아나 늘 코끝이 찡해진다.

추운 겨울이 수십 번 지나가도 6.25 전쟁의 냉기는 아직도 이 땅위에 뿔속 깊이 남아 있다. 6.25는 우리에게 결코 잊혀 질 수 없는 전쟁이다. 6.25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산가족의 슬픔과 고통이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단이 고착된 것은 전쟁이 초래한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어렵게 쟁취해낸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전례 없이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역시 목숨을 바쳐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백씨 아저씨와 같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살아 숨 쉬는 조국의 영웅 백씨 아저씨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